

수입제한 회피처 된 법원 지원장 자리

**광주고법·지법 국감
광주서 10년이상 근무 '향판'
퇴직 1~2년 전 해남·장흥으로
전관예우금지법 교묘히 우회**

명예로워야 할 '지원장' 자리가 '수입 제한 규정 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광주법원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일부 '향판'(지역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광주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향판 전관' 3명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입했다. 이는 이들 전관 변호사 3명이 개업 뒤 1년 동안 수입한 1·2심 형사사건 판결문 241건을 분석한 결과다.

변호사법은 판사 퇴직자 등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 '수입 제한' 규정이다.

하지만 이들 향판 전관 3명은 퇴직 전 1년 동안 광주지법 본원이 아니라 해남·장흥지원장으로 근무했다. '수입 제한' 규정의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원장 자리를 '수입제한 회피처'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노 의원은 이들 전관 변호사 3명이 개업 뒤 1년간 수입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2심에서 감형된 사건이 50%에 가까웠다.

광주에서 14년간 근무하다 장흥지원장을 지낸 뒤 개업한 A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수입한 사건 중 광주고법·광주지법에서 판결한 형사사건이 82건에 달했다. B변호사 역시 퇴직 후 1년간 광주고법·광주지법에서 78건의 형사판결을 받았다. 4.5일에 1건꼴로 판결을 받은 셈이다.

특히 A변호사의 경우 이 기간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과 민사사건까지 합하면 1년간 광주지역에서 수입한 사건 수는 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40% 이상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 데도 2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는 2심 판결 선고 사건 41건 가운데 원심보다 감형한 판결이 27건(52%)이었다. B변호사는 34건 중 16건(47%), C변호사는 25건 중 12건(48%)이 원심보다 감형했다. 이 중 별다른 변경 없이 형만 감해준 사건은 각각 11건, 15건, 21건이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일반 변호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A변호사가 맡은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48.7%, 2심은 41.4%다. 광주지법(1심) 평균 28.5%, 광주고법(2심) 13.1%보다 각각 20.2%포인트와 28.3%포인트 높다.

노 의원은 "전관 수입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10년 넘게 근무했던 광주법원을 떠나 지원장으로 있다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감형을 받는다는 잘못된 통념을 깨려면 법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V11 가을의 전설' 虎시탐탐



챔스필드 최종전 '구름관중' KIA의 2016시즌 홈 최종전이 열린 6일 챔피언스필드에 1만5000여 명의 관중이 찾아 '가을야구'를 즐겼다. KIA는 올 시즌 5년 만의 '가을잔치'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IA, 포기하지 않는 야구로 5년만에 포스트시즌 진출

5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호랑이 군단'이 2016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는다.

KIA는 지난 5일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두고 5강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정규시즌 4위로 준플레이오프를 치른 지 5년 만에 전

해전 '가을잔치' 소식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값진 성과다. 올 시즌 KIA는 많은 이들로부터 최하위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족한 전력에 윤석민의 부상을 시작으로 주전 선수들의 이탈도 계속됐다. 하지만 고향팀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김기태 감독이 특유의 '형님 리더십'으로 개개인의 전력을 최대한 끌어냈다. 또 김주찬-나지완-이범호로 구성된 클린업 트리오가 꾸준하게 시즌을 끌어오면서 부족한 전력을 채웠다. 특히 이범호는 개인 기록 행진 속에 '주장'으로 선

수단을 한데 묶으며 5년 만의 가을 잔치에 주역이 됐다.

포기하지 않는 싸움에 팬들도 경기장을 찾아 화답했다. KIA는 지난 3일 kt와의 홈경기에 1만134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올 시즌 목표로 했던 누적관중 75만60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관중 기록을 다시 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못해”

광주·전남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 “교육·보육대란 책임 정부에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3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내고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 위기단계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 시교육청만 불참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 10월 16일(일) 9:3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김영란법에 ...마을축제도 취소 ▶6면

신팔도유람 경북 한티 가는 길 ▶18면



'악속왕' KIA 김기태 감독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출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HERA

• 유행병확이나 아노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